



EPL 100호골 우뚝 선 손흥민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이 8일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라이턴 앤 호브와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30라운드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으며 기뻐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한국 축구의 애스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이 마침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100호 골 고지를 밟았다.

손흥민은 9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라이턴 앤드 호브와의 2022-23 EPL 30라운드 홈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 전반 10분 선제골을 터뜨렸다. 지난 시즌 득점왕에 올랐던 손흥민의 올시즌 리그 7호 골이자, 공식전 전체 11호 골이다.

특히 손흥민은 이 득점으로 EPL에서 100골이라는 금자탑을 세웠다. EPL 통산 100골은 역대 34번째이며,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의 기록이다.

2010~2013년 함부르크, 2013~2015년 레버쿠젠에서 뛰며 독일 분데스리가 정규리그에서 41골을 넣었던 손흥민은 2015년 8월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잉글랜드로 무대를 옮긴 뒤 리그 100골을 터뜨렸다.

자신의 EPL 두 번째 경기였던 2015년 9월 20일 크리스털 팰리스전에서 데뷔골을 넣은 이후 시즌, 기간으로는 7년 7개월여 동안 토트넘에서만 활약하며 100골을 쌓았다. 시즌당 14골을 터뜨린 특급 공격수다. 손흥민은 토트넘 소속으로 공식전을 통틀어서는 142골을 기록했다.

아시아 선수 최초... EPL 진출 7년여만에 대기록
브라이턴전 전반 10분 선제골 ... 토트넘 2-1 승리

통산 100호 골은 1992~93시즌 출범한 EPL에서 지금까지 34명에게만 허락된 대기록이다. 잉글랜드 축구의 전설적인 골잡이인 앨런 시어러가 1995~96시즌 처음으로 '100골' 고지에 오른 것을 시작으로 이날 손흥민이 역대 34번째로 EPL 세자릿수 득점을 돌파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선제골 이후 전반 동점 골을 내렸으나 후반 34분 골잡이 해리 케인의 결승골에 힘입어 2-1로 승리, 리그 4경기 무패(2승 2무)를 이어갔다. 순위는 5위(승점 53)다. 반면 리그 5경기 무패(3승 2무)행진이 끊긴 브라이턴은 7위(승점 46)로 밀렸다.

노팅엄 포리스트와의 27라운드에서 EPL 99호 골을 넣은 뒤 2경기에서 침묵을 지키던 손흥민은 어김없이 토트넘의 왼쪽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다. 이날 경기는 4위권 경쟁의 분수령으로 꼽힌 데다가 손흥민과 최근 브라이턴에서 매서운 공격력을 뽐내는 일본 국가대표 원어 미토마 가오루의 '미니 한일전'도 관심을 끌

었다.

손흥민이 경기 시작 10분 만에 기세를 올렸다. 왼쪽 측면에서 이반 페리시치의 패스를 받아 아크 왼쪽에서 '전매특허'인 오른발 감아차기로 골문을 열어 대기록을 달성했다. 미토마는 전반 17분 페널티 지역 중앙에서 오른발 슈트로 골망을 흔들었으나 그 전에 팔로 볼을 컨트롤한 상황이 지적되며 득점이 인정되지 않았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선제골을 오래 지키지 못했다. 파상공세를 이어가던 브라이턴은 전반 34분 솔리 마치의 코너킥에 이은 루이스 덩크의 헤더로 균형을 맞췄다.

전반 토트넘(슈팅 4개 유효슈팅 1개)보다 훨씬 많은 10개의 슈팅과 4개의 유효슈팅을 기록하며 공세를 퍼던 브라이턴은 후반 10분 페널티 지역 오른쪽 다니 웰백의 왼발 슈트 들어갔으나 다시 득점이 되지 않는 불운을 겪었다.

후반 13분 경기 전부터 신경전을 벌이던 토트넘의 크리스티안 스텔리니 감독 대행과 브라이턴의 로베르토 데 제르비

감독이 모두 레드카드를 받고 벤치를 떠나는 어수선한 상황도 나왔다.

후반 34분 토트넘이 다시 앞서가는 한 방을 만들어냈다. 미토마의 역습 시도를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끊어낸 뒤 손흥민에게 연결했고, 손흥민은 오른쪽 측면에서 상대 가랑이 사이로 절묘한 패스를 보냈다. 이를 받아 페널티 지역 안으로 침투한 피에르-에밀 호이비에르의 짧은 패스를 케인이 오른발 슈트로 마무리해 결승골을 터뜨렸다.

손흥민과 미토마가 나란히 풀타임을 소화한 가운데 개인 기록이나 팀의 결과에서 모두 손흥민이 웃으며 경기가 마무리됐다.

손흥민은 경기를 마친 뒤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EPL에서 100골을 넣는 건 엄청난 일"이라며 "내가 꿈꿔온 일이다. 동료들이 없었다면 이루지 못했을 놀라운 성과"라고 자평했다. 손흥민은 "지난 몇 주 힘든 순간을 겪어서 만감이 교차했다"며 "특히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일은 쉽지 않았다. 이 골을 그에게 바치고 싶다"고 말했다. 손흥민의 외할아버지는 이달 1일 세상을 떠났다.

박병현기자 bhpark@skyedaily.com

'스몰마켓' 구단 탬파베이 겁없는 질주

시즌 개막이후 8연승... 64득점
관중 수입적어 극단적 '생존전략'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의 대표적 스몰마켓 구단인 탬파베이 레이스의 시즌 초반 기세가 무섭다.

탬파베이는 9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 트로피카나 필드에서 열린 2023 MLB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 홈 경기에서 11-0으로 대승을 거두며 개막 후 8연승을 내달렸다.

MLB닷컴에 따르면 개막 후 8연승은 탬파베이 구단 신기록이자 2003년 캔자스 시티 로열스(9연승) 이후 리그 최고 기록이다. 탬파베이는 앞으로 5연승을 더하면 1987년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거둔 MLB 개막 후 최다 연승(13승)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

탬파베이의 개막 후 연승은 내용도 완벽하다. 탬파베이는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 개막전에서 4-0으로 승리한 것을 시작으로 매 경기 4점 차 이상으로 완승했다. MLB닷컴은 "개막 후 매 경기 4점 차 이상으로 8연승 이상을 거둔 팀은 1939년 뉴욕 양키스(10연승) 이후 처음"이라고 소개했다.

탬파베이는 이 기간 64득점-18실점을 기록했다. 개막 후 8경기에서 득실점 차이가 '46' 이상 난 사례는 야구 규정이 정립된 1901년 이후 처음이다.

연승 기록이 눈에 띄는 이유는 탬파베이 구단이 MLB의 대표적인 스몰마켓 구단이라서다. 탬파베이는 낮은 홈구장과 MLB에 관심이 적은 지역적 특성 등의 이유로 큰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구단이 2019년 홈 경기를 미국 세인트피터즈버그와 캐나다 몬트리올로 나눠 치르는 방안을 추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탬

파베이의 홈 경기 공유 계획은 MLB 사무국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관중 입장 등 수익구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는 문제였다.

탬파베이의 2022시즌 홈 평균 관중은 1만3927명으로 MLB 30개 구단 중 28위였다. 2021년엔 28위, 2019년과 2018년엔 29위에 머물렀고 2017년엔 최하위인 30위를 찍었다.

수입이 적으니 외부 자유계약선수(FA) 영입은 연감생심이다. 그러나 탬파베이는 매년 좋은 성적을 낸다. 탬파베이는 2019년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포스트시즌 진출에 성공했다.

뉴욕 양키스, 보스턴 레드삭스, 토론토 블루제이스 등 부자 구단들이 모인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에서 거둔 성과라 더 의미 있다.

탬파베이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이유는 극단적인 '생존전략' 때문이다. '전의 전쟁'에서 밀려난 탬파베이는 방향을 틀어 리빌딩 전략을 택했다.

유망주를 키워서 주축 선수로 키워낸 뒤 몸값이 오르면 타 구단 유망주와 트레이드를 단행해 팀을 재편했다. 탬파베이는 지난 겨울에도 주전 1루수이자 더그아웃 분위기 메이커였던 최지민을 피츠버그로 내보내고 마이너리그 우완 투수 잭 허트만을 영입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탬파베이는 다방면에 뛰어난 엘리트 선수를 영입하는 대신 선수들의 능력을 세밀하게 조개서 적재적소에 배치했다. 케빈 캐시 탬파베이 감독의 극단적인 플레툰(상대 투수에 따라 타자를 기용하는 전략)이 나온 이유다.

탬파베이는 올 시즌에도 젊은 선수들과 트레이드로 영입한 무명 선수들을 중심으로 푼푼 뭉쳐 승승장구하고 있다.

박병현기자 bhpark@skyedaily.com



탬파베이의 마무리 투수 케빈 켈리(오른쪽)가 승리를 지켜낸 하이 파이브를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WANNA RISE?

ALCOBAÇA Stream
DOUBLE WAVE

WANNA SPIN?

Ray SX-ZERO

RomaRo

(주)유니스코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89-5 인스코빌딩 문의전화 031)726-0085